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4월 20일

제07-21호

대중남미 수출급증 배경 분석과 향후 과제

권기수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kskwon@kiep.go.kr, Tel: 3460-1081)

주요 내용

- ▣ 최근 대중남미 수출이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하며, 중남미시장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효자시장으로 급부상함. 지난 3년간(2004~06년)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은 연평균 33.4%의 증가율을 기록해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총 수출증가율 13.2%를 크게 상회함. 이에 따라 대중남미 수출규모도 2004년 100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배가 증가한 206억 달러를 기록함.

- 높은 수출 신장세에 힘입어 2006년 대중남미 무역흑자는 우리나라 총 무역흑자(160억 달러)의 70%에 달하는 사상 최고치인 109억 달러를 기록함.
- ▣ 최근 대중남미 수출 급증은 △ 중남미 경제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 품질경쟁력 강화 및 한·칠레 FTA 발효 등에 따른 국산제품의 현지 수출경쟁력 향상 △ 수출유발효과가 큰 직접투자 확대와 현지 투자진출 기업들의 사업 확장 등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음.
- ▣ 중기적으로 중남미경제의 안정적 성장세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 전도는 양호할 전망이다. 중남미 수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약 50%는 향후 3년간(2007~09년) 대중남미 수출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 21세기의 역동적 성장 센터이자 우리의 주요 무역흑자시장인 중남미시장에서 수출시장기반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 수출시장 확대 및 수출품목 다변화 노력 경주 △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잠재적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 강구 △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지체된 중남미 국가들과 후속 FTA 신속 체결 △ 섬유·의류, 전자통신장비를 대체할 수출유발효과가 큰 새로운 투자분야 발굴 등의 과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임.

1. 對중남미 수출 급증 현황

- 최근 對중남미 수출이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하며, 중남미시장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시장으로 급부상함.
- 지난 3년간(2004~06년)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은 연평균 33.4%의 증가율을 기록해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 13.2%를 크게 상회함.
- 연도별 대중남미 수출 증가율은 2004년 31.4%, 2005년 29.6%, 2006년 37.4%를 기록함.
- 지역별로도 중남미시장은 지난 2년간(2005~06년) 가장 높은 수출 증가세를 시현함.
- 국별로 최근 3년간 對중남미 수출은 베네수엘라(연평균 증가율 205%), 버뮤다(165%), 콜롬비아(76%), 칠레(74%), 브라질(64%), 멕시코(60%)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특히 2006년에 멕시코는 높은 수출 증가세(전년대비 66%)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8대 수출국(수출액 63억 달러)으로 부상함.
- 품목별로는 평판디스플레이(2004~06년 연평균 증가율 457%), 무선통신기기부품(44%) 등 부품류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주종 수출품인 컬러 TV(67%), 승용차(60%) 등도 높은 성장세를 시현함.

표 1. 對중남미 10대 수출품목 및 10대 수출국에 대한 수출증가율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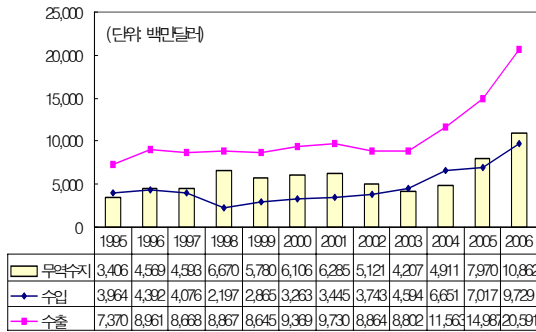
품목	10대 수출품목		국가	10대 수출국가	
	금액 (2006년)	연평균 증가율 (2004~06년)		금액 (2006년)	연평균 증가율 (2004~06년)
선박	4,409	24.6	멕시코	6,285	60.0
승용차	2,519	60.3	브라질	3,063	64.1
컬러 TV	1,941	66.9	파나마	2,227	33.3
무선통신기기부품	1,261	43.9	칠레	1,566	74.0
평판디스플레이	1,135	457.4	버뮤다	1,144	164.6
합성수지	870	31.5	바하마	1,123	11.2
무선전화기	787	9.6	베네수엘라	996	205.1
경유	634	59.5	콜롬비아	913	75.5
편직물	384	-12.9	과테말라	546	2.2
화물자동차	359	41.6	에콰도르	386	47.2

자료: KOTIS

- 그에 반해 전통적인 수출효자품목인 편직물 등 섬유·의류제품의 수출은 중국산제품과의 경쟁 심화, 중미 봉제산업 투자 진출 부진 등의 요인을 반영해 10대 수출품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감소함.
-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對중남미 수출은 2004년 100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배가 증가한 206억 달러를 기록함.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남미시장의 위상도 2004년 4.6%에서 2006년에는 6.3%로 확대됨.
- 높은 수출 신장세에 따라 2006년 對중남미 무역흑자는 사상 최고치인 109억 달러를 기록해 우리나라 무역흑자 달성에 크게 기여함.
- 2006년 對중남미 무역흑자 규모는 우리나라 총 무역흑자(160억 달러)의 70%에 달함.
- 對중남미 국별 무역흑자는 멕시코 55억 달러, 파나마 20억 달러, 버뮤다 및 바하마 각각 11억 달러, 베네수엘라 9억 달러 順을 기록함.
- 중남미시장의 수입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현지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점유율도 크게 확대됨.
- 우리 제품의 중남미시장 점유율은 2004년 2.7% → 2005년 3.0% → 2006년 3.9%(중남미 5대 수출시장¹⁾ 기준)로 꾸준히 증가함.
- 중남미 5대 수출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과테말라를 제외하고 크게 증가함.
- 멕시코 2.7%(2004년) → 4.2%(2006년); 브라질 2.8% → 3.4%; 칠레 3.1% → 4.7%; 콜롬비아 2.7% → 2.9%; 과테말라 6.0% →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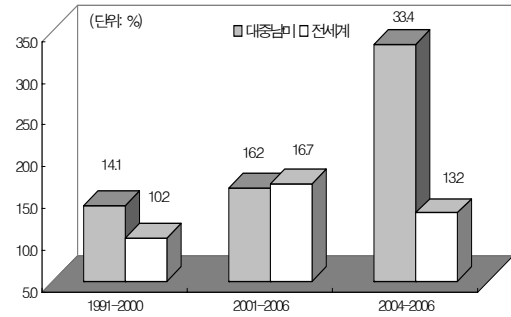
1) 중남미 5대 수출시장은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과테말라로 최근 5년간(2002~06년) 對 중남미 총 수출의 합계로 선정함. 여기서 중계무역국인 파나마와 선박수출 대상국인 버뮤다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그림 1.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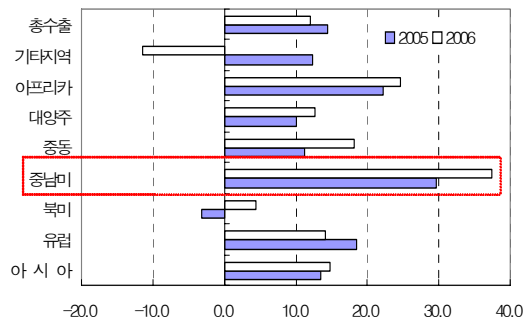
자료: KOTIS

그림 2. 시기별 우리나라의 총수출 및 對중남미 연평균 수출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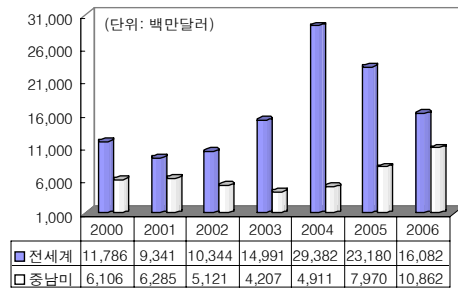
자료: KOTIS

그림 3. 권역별 수출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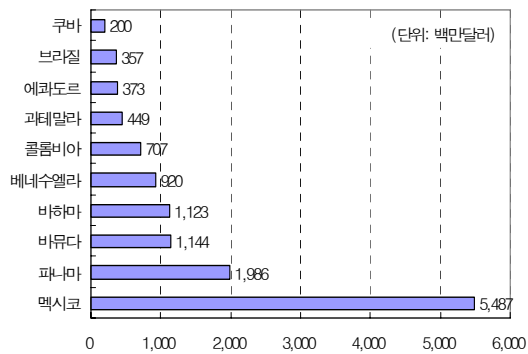
자료: KOTIS

그림 4. 우리나라 총 무역흑자 및 對중남미 무역흑자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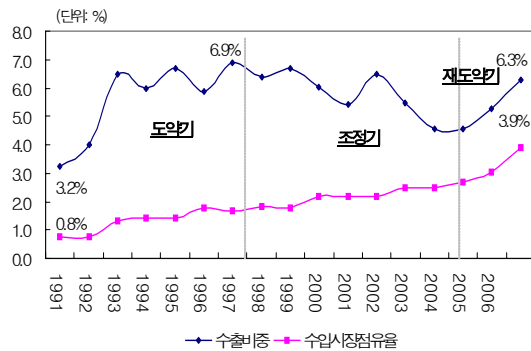
자료: KOTIS

그림 5. 대중남미 10대 무역흑자대상국



자료: KOTIS

그림 6.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중남미시장 비중 및 현지 시장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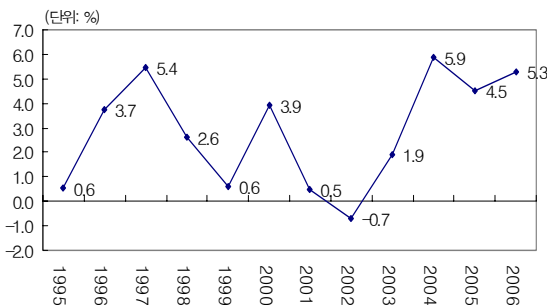
자료: KOTIS, IMF DOTS, World Trade Atlas.

2. 對중남미 수출 급증 배경

가. 중남미 경제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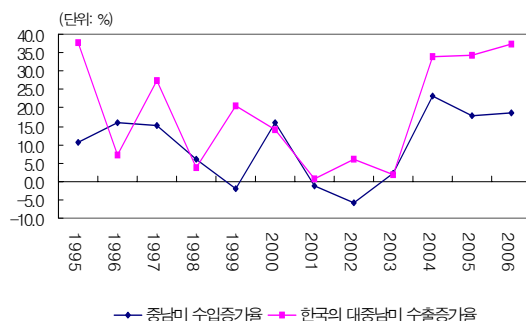
- 최근 對중남미 수출이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중남미경제의 빠른 성장세에 힘입은 높은 수입수요 증가에 기인함.
 - 중남미경제는 1990년대 성공적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기초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세계경제 호황 및 중국 특수에 힘입어 주종 수출품인 원자재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오랜 침체를 벗어나 최근 3년간(2004~06년) 연평균 5%대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함.
 - 중남미경제의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2004년부터 수입도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섬. 최근 3년간(2004~06년) 중남미지역의 연평균 수입증가율(18%)은 장기 추세 수준(1980~2005년간 연평균 6.7%)을 크게 상회함.

그림 7. 중남미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CEPAL)

그림 8. 중남미 수입증가율 및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증가율



자료: IMF DO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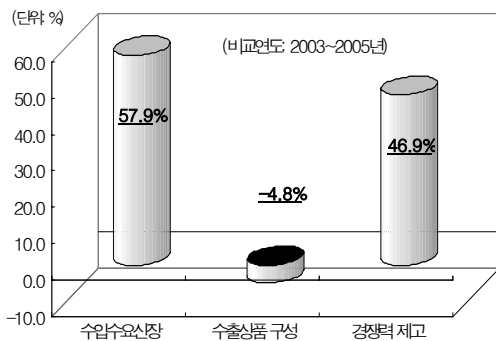
- 최근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이 현지시장의 수입수요 확대에 의해 견인되었음은 수출성과 분석이나 중남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됨.
 - 먼저 불변시장점유율(CMS)²⁾ 분석을 통해볼 때 최근 3년간(2003~05년) 우리나라의 對중남

2) 불변시장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CMS) 분석은 기본적으로 각 품목별 시장점유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수출경쟁력이 지속되기 때문이라는 가정에서 출발. CMS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증가요인을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 먼저 중남미 총수입수요신장에 따른 수출증가효과, 둘째 대중남미 상품구성의 유리함에 따른 특정상품의 수요급증에 힘입은 수출증가효과, 셋째 경쟁력 증가에 의한 수출증가 효과임. 경쟁력 증가에 따른 수출증가효과는 가격 경쟁력 및 비가격경쟁력을 동시에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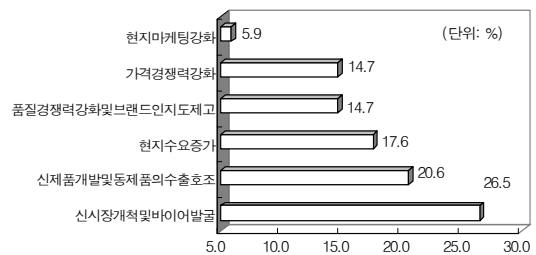
미 수출은 중남미시장의 수입수요신장에 가장 크게 힘입은 것으로 밝혀짐. 분석대상 기간 중 총 수출증가의 58%가 중남미 수입수요 신장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중남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³⁾에서도 현지수요 증가가 수출 확대의 주요인으로 지목됨. 전체 응답기업의 18%가 현지수요 증가에 힘입어 최근 3년간 對중남미 수출이 증가했다고 답변함.

그림 9.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증가 요인 분석 그림 10. 최근(2004~06년) 對중남미 수출증가 요인



자료: 필자 작성



자료: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나. 한국산제품의 현지 수출경쟁력 제고

- 두 번째로 최근 對중남미 수출 증가는 전반적인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분석됨.

- 불변시장점유율 분석(그림 9 참고)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3~05년) 對중남미 수출 증가의 약 50%가 중남미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짐.

- 경쟁력 증가요인을 가격경쟁력과 비가격경쟁력요인으로 대별해 살펴보면 중남미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은 대체로 비가격경쟁력 제고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 가격경쟁력지수⁴⁾ 분석 결과, 2000~05년 기간 중남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출가격경쟁력은

3) 설문조사는 2007년 2월 12일~3월 8일 중남미 주요 수출기업 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함.

4) 여기서 가격경쟁력지수(Price Competitiveness Index)는 한국과 경쟁국의 수출단가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함. 일반적으로 가격경쟁력지수는 다음과 같이 구함. $PCI_i = 100 * (MPI_i * XPII_a)$. 여기서 PCI_i = 중남미수입시장에서 I국의 가격경쟁력지수, MPI_i = I국의 수출단가지수, $XPII_a$ = 중남미의 수입단가지수

원화가치의 절상에 따라 크게 하락함. 특히 중남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경쟁력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그에 반해 같은 시기 독일, 프랑스 등 EU국가의 중남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은 오히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중남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경쟁력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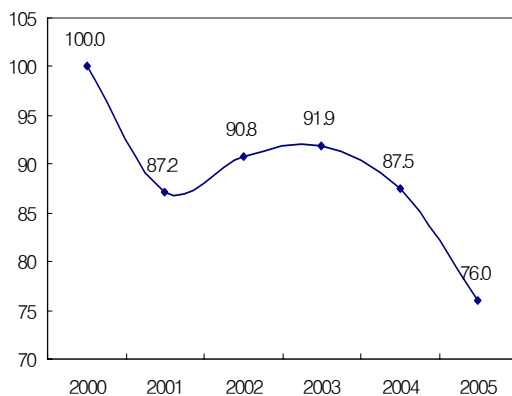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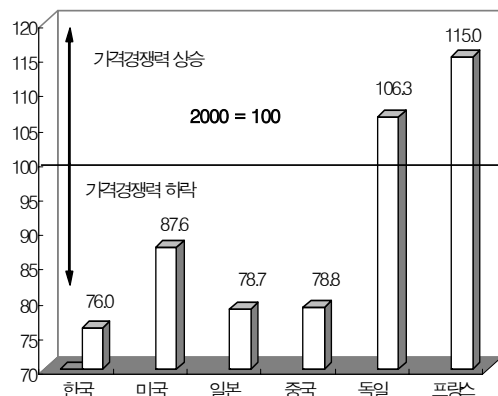


그림 12. 중남미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의 가격경쟁력지수(2005년 기준)



주: 가격경쟁력 지수가 100이상이면 가격경쟁력 강화, 100이하면 가격경쟁력 하락
 자료: IMF(2006),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설문조사(그림 10 참고)를 통해 볼 때 중남미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비가격경쟁력은 신시장 개척 및 바이어 발굴, 신제품 개발과 동 제품의 수출확대, 품질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인지도 제고 등에 기인함.

-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 노력에 힘입어 對중남미 수출품목 수(100만 달러 이상, HS10단위 기준)는 2004년 532개 → 2005년 586개 → 2006년 670개로 크게 증가함.

- 중남미 10대 수출 상품을 대상으로 한 비교우위 분석⁵⁾ 결과, 품목별로 중남미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은 편물, 인조필라멘트 등 섬유류와 광물성 연료에너지인 경유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향상됨.

- 특히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주력 수출품목인 전기기기·TV·VTR 제품의 비교우위가 가장 두드러지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됨.

5) 여기서 비교우위는 중남미 5대 수출시장(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과테말라)을 대상으로 10대 수출상품을 도출, 이를 중심으로 분석함.

표 2. 중남미시장에서 10대 수출상품의 비교우위지수(MCA)⁶⁾ 추이

HS 2단위	2001년	2003년	2005년	비교우위 변화 (2001년/2005년)
85 전기기기, TV, VTR	1.54	1.23	2.65	↑
84 기계/기계부품	0.91	1.76	1.20	↑
87 일반 차량	1.16	0.84	1.62	↑
39 플라스틱	1.13	1.10	1.82	↑
83 각종 비금속 제품	0.11	29.87	0.23	↑
60 편물	28.67	29.88	9.37	↓
27 광물성 연료에너지	0.47	0.31	0.46	↓
72 철강	1.29	0.58	1.58	↑
54 인조 필라멘트	9.57	4.55	3.48	↓
90 광학/측정/정밀기기	0.33	0.18	0.96	↑

주: MCA가 1이상이면 비교우위, 1미만이면 비교열위를 의미. ↑ 비교우위 상승, ↓ 비교우위 하락, ↔ 변동 없음.

- 한·칠레 FTA 발효(2004.4.1)에 따른 수출증대효과도 최근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 호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한·칠레 FTA 발효 후 3년간(2004~06년)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은 연평균 48% 증가, 같은 기간 칠레의 총수입 증가율 27%를 크게 상회함. 이에 따라 칠레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2003년 3.0%에서 2006년에는 4.7%로 크게 증가함.

표 3. 한·칠레 FTA 전후 칠레 수입시장에서 주요 한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기준관세/양허)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점유율 증감 (B-A)	연평균 증가율 (03~06)
	금액	점유율 (A)			금액	점유율 (B)		
자동차 (6%/즉시 철폐)	107.5	16.1	179.6	280.8	366.5	26.2	10.1	50.5
무선통신기기 (6%/즉시 철폐)	24.4	9.5	67.2	93.1	128.6	14.3	4.8	74.0
컬러 TV (6%/즉시 철폐)	7.3	7.3	13.2	20.8	35.9	12.4	5.1	70.1
철강판 (6%/5~13년 철폐)	7.8	10.2	11.7	13.9	34.6	22.5	12.3	64.3
경유 (6%/5년 철폐)	64.1	23.8	61.1	154.5	515.5	23.3	-0.5	100.4
자동차부품 (6%/즉시, 5, 13년철폐)	8.8	8.2	9.9	13.0	15.4	6.3	0.4	20.5
타이어 (6%/13년 철폐)	8.5	5.9	12.0	14.8	13.0	4.6	-0.8	15.2

자료: World Trade Atl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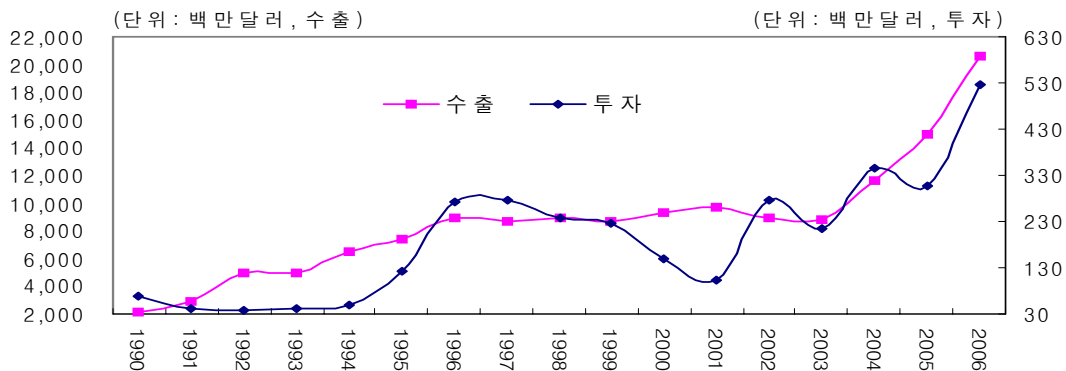
6) 일반적으로 세계시장에서 각국의 비교우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를 사용하나 여기서는 RCA를 중남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분석할 수 있도록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arket Comparative Advantage, MCA)로 변형하여 사용함.

- 품목별로는 자동차, 휴대폰, 컬러 TV 등 관세인하 폭이 큰 품목에서 수출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남.

다. 對중남미 직접투자 증가

- 세 번째로 최근 對중남미 수출 증가는 수출유발효과가 큰 직접투자 확대와 현지 투자진출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힘입은 바가 큼.
- 2000년대 초까지 중남미지역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주춤했던 우리 기업의 對중남미 직접투자는 최근 중남미경제의 신속한 회복세, 광물·에너지자원 투자처로서 인식 제고 등에 힘입어 2004년부터 큰 폭의 증가세로 반전, 2006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5억 2,700만 달러를 기록함.
- 국별로 최근 3년간(2004~06년) 對중남미 투자는 제조업 투자대상지이자 자원투자처인 브라질, 페루, 멕시코 등에 집중됨.
- 멕시코 마킬라도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최근 미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겨냥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브라질 현지시장에서 이미 확고한 위치를 구축한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은 시장성이 검증되었거나 유망한 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판매 또는 생산품목의 확대를 도모함.

그림 13.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 및 직접투자⁷⁾ 추이



자료: KOTS; 한국수출입은행.

- 특히 전자통신장비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투자는 수출유발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전자통신장비의 현지법인은 전체 매입액의 약 50~70%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함.

-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 對브라질 투자의 50%(2억 7,480만 달러), 對멕시코 투자의 40%(1억

7) 조세 피난처인 바하마에 대한 13억 달러 투자는 제외

8,267만 달러)가 전자통신장비 분야에 집중됨.

- 2006년 우리나라의 對멕시코 및 對브라질 수출품목 구성은 직접투자와 수출간의 높은 상관 관계를 입증함.
- 멕시코와 브라질의 상위 5대 수출품목 중 전자통신장비 관련 부품의 비중은 79%, 94%에 달함.
- 지난해 멕시코의 경우 컬러 TV 부품, 액정디바이스, 브라질의 경우 무선통신기기 부품, 컬러 TV 부품 등에서 높은 수출 증가세를 시현함.
- ※ 2006년 브라질에 진출한 전자통신장비 관련 우리 대기업들(삼성과 LG)의 수입규모는 총 25억 달러에 달함(브라질 상공개발부).

표 4. 우리나라의 對멕시코 및 對브라질 상위 5대 수출품목(2006년, MTI 6단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멕시코				브라질			
	품목명	금액	증가율	비중	품목명	금액	증가율	비중
1	컬러 TV 부품	1,509	57.4	40.6	무선통신기기부품	910	12.8	55.5
2	액정디바이스	1,097	723.0	29.5	컬러 TV 부품	272	96.9	16.6
3	휴대용전화기	473	204.0	12.7	천연색염색극선관	252	28.0	15.4
4	무선통신기기부품	337	80.5	9.1	HDD	106	9.0	6.5
5	세단형승용차	302	147.6	8.1	철도차량	101	2,180	6.2
5대 수출상품 소계		3,718	-	100.0	5대 수출상품 소계	1,641	-	100.0
총 수출		6,283	65.9	-	총 수출	3,063	27.1	-

자료: KOTIS

3. 對중남미 수출 전망 및 향후 과제

가. 對중남미 수출 전망

- 중기적으로 중남미경제의 안정적 성장세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 전도는 양호할 전망이다.
- ※ 향후 3년간(2007~09년) 중남미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세계 경제성장률 3.4%를 상회하는 4%에 달할 전망이다(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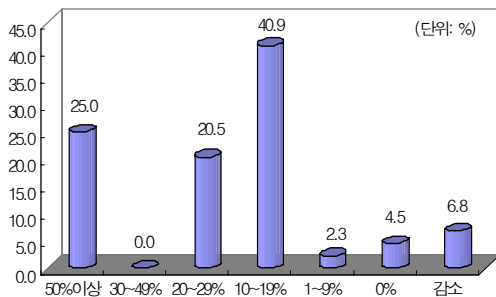
- 이같은 전망은 중남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됨. 전체 응답업체의 약 50%가 향후 3년간 대중남미 수출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지난 26년간(1980~2005년)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 장기 추세(연평균 수출 증가율 기

준)에 기초해 수출을 전망한 결과, 향후 3~5년(2007~2011년) 후 對중남미 수출규모는 각각 344억 달러, 48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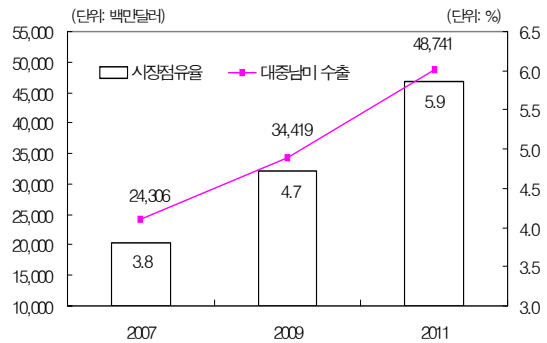
- 이 경우 중남미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시장점유율도 2005년 3.0% → 2009년 4.7% → 2011년 5.9%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4. 향후 3년간(2007~09년) 對중남미 연평균 수출 증가 전망



자료: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그림 15.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 전망 추정



자료: 1980~2005년 중남미 연평균 수입증가율 및 한국의 對중남미 연평균 수출증가율을 토대로 작성

나. 對중남미 수출의 향후 과제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분간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 전도는 밝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수출 전망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역동적 성장 센터이자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흑자시장인 중남미지역에서 수출시장기반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임.
- 과제 1: 일부 국가 및 수출품목에 대한 쏠림 현상 심화 → 수출시장 확대 및 수출품목 다변화 노력 경주
 -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은 일부 국가 및 주종 수출품에 대한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함.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상위 3대 수출국과 상위 10대 수출품에 대한 의존도는 각각 56%, 76%에 달함.
 - 이는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상위 3대 수출국 및 상위 10대 수출품에 대한 편중도가 각각 43%, 61%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음.

- 이같은 수출 편중도 심화로 우리나라는 중남미 각국의 수입규제에 쉽게 노출되며, 중남미지역의 경기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수출구조를 갖게 되었음.
- 1990~2006년 기간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 변동계수⁸⁾는 122로 우리나라의 총 수출 변동계수 102를 크게 상회함.
- 일부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된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시장의 적극적인 개척이 필요함.
- 무역집중도⁹⁾ 분석을 통해 볼 때 중남미 국가 중 현재 수출 확대 가능성은 높으나 충분히 개발되지 않고 있는 시장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파라과이, 우루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임.
-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단 파견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수출품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중남미 각국의 산업정책을 면밀히 주시하여 산업정책의 변화에 조응하는 수출품목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브라질을 위시한 중남미 각국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간 등한시했던 에너지, 전력, 통신,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적극화하고 있어, 기계 및 산업설비, 건설장비 등 이와 관련 품목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
- 과제 2: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무역불균형 시정 요구 및 수입규제 발생 가능성 확대 → 선제적 통상마찰 대응책 적극 강구
- 우리나라는 중남미와의 교역에서 1987년 이후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해오고 있으며, 2004년 이

8)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평균 x 100)의 수식으로 산출되며, 여기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및 총 수출 변동계수는 1990~2006년 기간의 연도별 수출증가율을 토대로 작성함.

9) 무역집중도는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가간의 양자 무역의 집중도를 보여줌. 무역집중도 (Iij)는 i 국가에서 j 국가로의 전체 수출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I 국가에서 j 국가로의 수출(Xij/Xi)이 세계수출(Mw)에서 j 국가 전체수입(Mj)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양자 무역집중지수가 1이상(이하)이면, 양국은 세계전체무역에서 상대국의 비중으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적은) 양자 무역을 하는 것임. 무역집중지수가 1을 하회할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지시장에 대한 관심정도가 부족해 아직까지 충분히 진출하지 못했다고 판단, 향후 시장개척 여하에 따라 진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음. 여기서 우리나라와 중남미 각국과 무역집중지수는 2005년 기준으로 아르헨티나(0.74), 볼리비아(0.45), 도미니카공화국(0.75), 엘살바도르(0.91), 자메이카(0.27), 파라과이(0.81), 우루과이(0.8), 트리니다드토바고(0.4)임.

후 그 흑자 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중남미 국가들의 통상마찰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성향이 강한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빈번하게 관세인상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은 물론 반덤핑, 세이프가이드 등 비관세장벽 조치를 발동해옴.

※ 2007년 3월 현재 중남미 국가들의 對韓 수입규제는 아르헨티나 반덤핑 2건(철강금속), 멕시코 반덤핑 2건(섬유류) 등 총 4건임.

- 따라서 잠재적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해 對韓 무역역조가 큰 중남미 국가들(그림 5 참고)을 대상으로 구매사절단, 투자사절단을 파견하는 등의 선제적 통상마찰 대응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남미의 무역역조국가들이 희망하는 품목의 수입(쇠고기, 닭고기, 생과일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거나 이를 적극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직접투자를 통해 우리가 필요한 식량자원, 광물자원 등 수입품을 적극 개발해야 함.
- 더 나아가 유무상 원조자금 지원대상국, 기술협력대상국 선정시에도 무역역조가 큰 국가를 우선지원 대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 과제 3: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지체된 중남미 국가들과 후속 FTA 신속 체결

- 한·칠레 FTA 사례에서 입증되듯 관세장벽이 높은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은 수출확대를 담보하는 확실한 보험임.
- 따라서 현재 중단된 멕시코와의 전략적보완협정(SECA) 협상을 신속히 재개하는 한편, 2006년 공동연구를 마친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도 조속히 FTA 협상을 개시해야 함.
- 또한 최근 중남미 소지역 중에서도 새로운 성장 센터로 급부상한 안데스지역 국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페루나 콜롬비아와도 FTA 협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함.
- 이같은 중남미 국가들과의 신속한 FTA 체결은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우리 주요 경쟁국의 중남미시장 선점을 위한 공격적인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임.
- 일본은 2004년 9월 멕시코와 FTA를 체결(2005. 4. 1 발효)한 여세를 몰아 2007년 3월에는 칠레와도 FTA를 체결했으며, 중국도 2005년 11월 칠레와 FTA 체결(2006. 10. 1 발효)을 시작으로 중남미국가들과 본격적인 FTA 협상을 준비해오고 있음.

- 과제 4: 섬유·의류, 전자통신장비를 대체할 수출유발효과가 큰 새로운 투자분야 발굴 시급
 -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중남미지역에 대한 투자진출은 수출유발효과가 크고 외화가득 실적이 매우 높은 것으로 입증됨.
 - 그간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은 섬유·봉제 투자, 전자통신장비 투자 진출에 따른 관련 원부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해온 게 사실임. 그러나 이들 분야는 현재 저가산 중국 제품과의 경쟁 심화, 현지산 부품 사용 확대 압력 등의 도전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이들 분야를 대체할 수출유발효과가 큰 새로운 투자진출 분야를 발굴하는 게 급선무임. 현재 중남미시장의 전반적인 진출환경을 감안해 볼 때, 투자진출 유망 분야는 중남미 각국이 역점을 두고 있으며 2005년 우리나라의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으로 진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건설·인프라분야임.
 - 현재 중남미지역에서는 멕시코 중남부와 중미 8개국을 포함하는 푸에블라-파나마계획(PPP, Plan Puebla-Panama), 남미 10개국을 포괄하는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¹⁰⁾ 등 지역 차원의 대단위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 또한 브라질은 성장촉진계획(PAC)의 일환으로 향후 4년간(2007~2010년) 인프라개발에 총 2,36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멕시코도 현재 81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개별국 차원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 앞으로도 당분간 중남미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에 힘입어 지역별 차원은 물론 국별 차원에서 인프라 개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 이같은 중남미 건설인프라 관련 사업의 높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분야에 대한 투자 진출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임.

표 5.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건설플랜트 수주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3월	누계 (1993~2007년 3월)
전체(A)	10,435	10,150	6,342	8,471	15,814	25,523	6,484	83,128
중남미(B)	115	28	47	39	609	1,298	330	2,466
비중(B/A)	1.1	0.3	0.7	0.5	3.9	5.1	5.1	3.0

자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중남미 건설인프라 분야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 차원에서 중남미 미개척시장 진출

10) Iniciativa para la Integración de la Infraestructura Regional Suramericana

을 위한 건설·인프라외교 강화, IDB 발주사업 조기 수주를 위한 적극적 지원, 성공적인 한국형 진출 모델로 입증된 자원개발 + 플랜트 연계 패키지형 진출 모델의 중남미 적용, 중남미 국가들과의 후속 FTA 신속 체결을 통한 수주기회 확대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업체 차원에서도 현지 유력 건설인프라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확대, 상사 및 개발업체와의 전략적 유대 강화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